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3월 23일(수), 오후 2~4시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 순 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다원이엔씨(주) / 055-321-6400

1. 강의를 시작하며

일제는 한국을 식민통치하기 위하여 여러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주장하던 식민사관을 증명하여 조선의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유적, 유물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고적조사사업이다.

즉 일본은 식민통치의 근거를 역사 속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일찍이 식민사관을 정립하였고 이에 대한 실증작업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목적인 바를 달성키 위해 한국의 유물과 유적을 활용하여 역사를 왜곡 혹은 말살하였다.

2. 세키노 타다시[關野貞]의 고건축 · 고적조사 (1902, 1909-1911)

일제가 한국의 고적을 합법적인 계통을 밟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세키노 타다시[關野貞]를 통해서이다. 그는 ‘건축전문가’로서 1902년 고건축물 조사를 시작으로 1935년 타계할 때까지 해마다 한국으로 건너와 낙랑과 고구려 유적을 조사하였다. 우선, 세키노는 1902년의 고건축물 조사와 1909년부터 1911년까지의 고적조사를 통해 한반도 전체를 그 조사 대상지로 삼았다.

특히 1909년의 조사 목적은 “고건축물을 새로이 행정시설로 전용하고 혹은 파괴되거나 철거의 위험이 있는 것은 그 중요도에 의해 보존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반도의 최대 권력기관인 통감부는 한국의 사법 행정권 접수와 함께 건축물을 신설하거나 고건축물을 해체 혹은 여러 관아 청사로 전용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1909년 조사의 주대상은 건축물이었다. 조사대상을 네 등급으로 나누어 그 가치를 부여하였다. 특히 세키노에 의한 1909~1911년 3년간 실시한 고건축물 및 고적에 대한 등급부여 작업은 일제강점기에 거의 그대로 문화재 지정에 적용되는데, 1933년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의해 지정된 고적 및 보물 가운데 일찍이 세키노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된 것 (고적 24건, 보물 66건) 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는 한일병탄 이전의 고적조사가 이후 식민지 문화재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한일병탄 전부터 1915년까지 한반도에서의 고적조사는 주로 세키노 [關野貞] 를 단장으로 하는 일명 세키노 팀에 의해 해마다 경성에서 시작하였다. 조사에 앞서 통감부 혹은 총독부로부터 촉탁 임명을 받고, 조사 예정표 작성 및 제출을 위해 일주일 이상 머물렀다. 그리고 제출한 일정을 기초로 각종 조사의 편의, 숙박시설의 결정, 도·군청으로부터 수행자를 소개받는 등 준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대개 9월 혹은 10월에서 12월, 즉 가을에서 겨울에 이르는 짧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한반도 각지의 건축물, 고적, 공예품을 ‘넓게 그리고 깊지 않게’라는 자료 조사적 성격을 기본 방침으로하여 1915년까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물 가운데는 지방 행정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방통치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처럼 주로 세키노 팀에 의해 실시된 1909년부터 1915년까지의 한반도 고적조사사업은 이후 1916년 법령과 기구의 마련에 따른 본격적인 고적조사사업의 기초 단계를 마련하였다.

3. 고적조사사업의 본격적인 실시 : 고적조사 5개년 사업 (1916-1920)

일제는 1916년부터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고적조사 5개년 사업은 일반조사와 특별조사로 구분하였다. 일반

조사는 한국의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조사를 그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역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고 있으나 특히 한사군 낙랑지역과 가야지역에 집중하였다. 그런데 고적조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유적·유물 수집에 힘을 기울이자 한편에선 일본인 약탈자들에 의한 고분 도굴과 위법 매매가 성행하였고, 이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이에 통제의 필요성을 느낀 조선총독부는 1916년 7월 4일 총독부 부령 제52호로 『고적급유물보존규칙』을, 총독부 훈령 제29호로 『고적조사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한반도에서의 고적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였다.

그리고 1915년 조선총독부는 시정 5년을 기념하는 조선물산공진회를 경복궁에서 열어 경복궁의 여러 전각을 공진회 기념식장, 귀빈실, 전시장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선왕실의 정궁으로서의 경복궁을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이 행사를 마친 후 그해 12월 1일 미술관이었던 건물의 명칭을 변경하여 조선총독부 박물관을 개관함으로써, 유물의 전시를 통한 본격적인 역사 왜곡과 궁궐 훼손을 실행하였다.

(1) 고적조사사업의 본격화 (1916-1920년)

- ① 1916년 고적조사사업 : 한사군, 고구려 유적→한국 역사의 외인론적(外因論的) 타율적(他律的)인 측면을 강조.
- ② 1917년 고적조사사업 : 삼한, 가야, 백제 유적→김해지역에 대한 발굴조사 본격화(구로이타).
- ③ 1918년 고적조사사업 : 신라 및 선사 유적→야쓰이 일행의 전남 나주군 반남면 고분군, 경남 창령군 고분의 출토품이 1928년 동경제실박물관 역사부에 출품.
- ④ 1919년의 고적조사사업 : 신라의 유적·유물을 중심으로 일부 진행

⑤ 1920년의 고적조사사업 : 김해패총(우메하라, 하마다), 양산 부부총 유적 발굴 조사.

요컨대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의 5개년 고적조사사업은 실제로 일반·특별·임시조사 등 조사사업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세키노, 구로이타, 이마니시, 도리이, 우메하라, 하마다 등 고적조사위원 가운데 팀 책임자를 세우고 실무자 한두 명으로 최소 인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1년 가운데 특정기간을 정하여 짧은 기간에 고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소한의 경비와 인력·시간을 들여 조선총독부가 의도한 대로 한국의 고적조사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은 한사군(낙랑)·고구려·신라·임나(가야) 및 백제의 고도 인 평양·경주·가야·부여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하는 실증적 자료를 모으는 일에 역점을 두는 등 학술적·정치적 목적까지 포함한 조사사업이었다. 그리고 수집된 유물은 조사연구라는 명분하에 일본으로 유출되었다. 그리고 고적조사위원회 5개년 고적조사사업은 출판사업으로 마무리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고적조사 후 매년 보고서와 함께 고급 양장으로 『조선고적도보』전 15권을 발행하였다. 그 가운데 제1책에서 제5책은 한국 문화가 역사 이래로 중국 및 일본과 관련성이 있음을 널리 세계에 알리고자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기록하였다.

특히 5개년 조사사업은 일본 관학자들의 식민사관의 논리에 근거가 될 만한 유적·유물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학술 방법을 빌린 정치적 목적을 드러낸 것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고적조사사업과 사서편찬사업과의 연관성이다. 일찍이 고적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각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보고서로 정리하면서 한국사의 ‘타율성론’을 적극 증명하려던 위원들이 1922년 설립된 조선사편찬위원회에 참여하여 『조선사』편찬을 통해 그 논의들을 구체

화시키려 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은 후지타[藤田亮策], 이마니시[今西龍], 구로이타[黑板勝美], 우메하라[梅原末治], 고이즈미[小泉顯夫] 등이다.

(2) 고적조사위원회가 실시한 1920년대 고적조사사업

한사군 및 고구려, 신라, 가야, 백제 유적에 관심이 모아졌으며, 1921년에는 고적조사과를 두어 고적조사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관동대진재의 영향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됨으로써 재정긴축 조치로 인해 1924년에 폐지. 그리고 총독부 예산 가운데 고적보존비나 고적조사비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으로써 조사지가 확대되지 못하였고, 1916년에 조직된 고적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1934년 이후에는 예산 항목조차 삭제됨으로써 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조선고적연구회를 통한 1930년대 고적조사사업

1915년부터 조선고적조사에 참여하였던 동경제국대학 교수 구로이타[黑板勝美]가 이와사키[岩崎小彌太] 남작에게서 6천 엔의 보조금을 받아 1931년 8월에 조선고적연구회를 설립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단순히 동호인의 연구회가 아니라 총독부의 ‘고적 보물 조사연구 부분을 담당’ 하는 것으로 ‘연구원과 발굴비 면에서 총독부의 사업을 돕는다’는 취지하에 설립된 조선총독부 외곽 단체로 설립되었다.

회칙에 “본회는 평양 및 경주를 중심으로 고적을 연구하여 조선 문화의 발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조선고적연구회가 평양과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함을 밝혀 종전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목적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임원은 대부분 조선총독부 고적조사위원회에 참

여한 사람들이지만 이전 고적조사위원회와는 달리 한국인은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1932년 정백리 제127호분과 1933년 평양 제227호분의 발굴 유물은 모두 동경 제실박물관에 현상하였는데, 자세한 유출 및 수집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사무소는 경성의 조선총독부박물관에 두었고, 먼저 경주박물관 분관 내에 경주연구소와 평양부립박물관 내에 평양연구소를 각각 설치하여 신라문화와 낙랑문화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1935년에는 부여진열관 내에 백제연구소를 두어 백제의 고분과 사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는 연구소 설치, 연구원 배치, 조사 자금의 모금 및 운영 등 일체의 사무는 이사회에 결정에 따랐지만 구체적인 사업들은 구로이타의 제안에 따라 후지다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고적연구회의 사업 내용은 설립 목적에 따라 낙랑고분과 신라고분 조사에 집중하였다. 평양연구소엔 고이즈미[小泉顯夫]·오바[小場恒吉], 경주연구소엔 아리미즈[有光教一]·사이토[齋藤忠]·오사카[大坂金太郎], 부여의 백제연구소에는 후지사와[藤澤一夫] 등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현지에 거주하면서 조사 정리를 하도록 하였다.

조선고적연구회의 고적조사사업은 총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1기는 연구회 설립 때부터 1932년까지이며, 제2기는 조선고적연구회 제1차 3개년 사업을 시작한 1933년부터 1935년까지이다. 제3기는 제2차 3개년 사업을 시작한 1936년부터 1938년까지이며, 마지막 제4기는 1939년부터 시작하여 패전 시기까지의 조사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1936년부터 1945년까지는 낙랑과 신라 유적에 편중하였던 조사활동과는 달리 고구려와 백제의 유적 조사에도 관심을 가졌다. 조사 대상 범위도 종전의 고분에 집중하였던 데서 벗어나,

불교유적, 토성 등에도 관심을 가졌고, 개개의 정밀한 발굴과 분포조사도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서로 간행하였다. 이것은 아마도 이전까지의 발굴작업을 통해 충분한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아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생각한다.

5. 강의를 마치며 - 일제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일제강점기 한반도의 고적조사사업은 식민통치 전 시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즉 한일병탄 이전부터 한국의 유물·유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일본은 1916년부터 5개년 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실시하면서, 법령과 기구를 마련하여 체제를 갖춘 본격적인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적조사 위원으로 고적조사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는 조선사편찬위원회으로도 활동하였다. 이는 일제에 의한 한반도의 유적·유물의 조사와 사료의 조사 및 편찬 작업이 ‘따로 또 같이’ 형태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고적조사사업의 목적은 일제 식민통치의 이데올로기를 역사 유적과 유물을 통해 증명코자 함이었다. 즉 한사군 지역인 평양 부근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남부지역에 집중한 이유도 바로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사의 타율적 성격론을 문헌뿐만 아니라 유적 유물을 통해 확인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만큼의 결과들이 드러나지 않자 수집된 유물들을 경성의 조선총독부박물관을 비롯한 경주·평양·개성·부여에 박물관이라는 근대적 전시 공간 속에서 왜곡 혹은 재구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식민통치를 ‘근대 문명의 발전’으로 덧입혔다.

당시 박물관의 진열품은 고적 발굴 유물 뿐 아니라 매입하거나 기증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기부자 가운데는 일찍이 고적조사사업에 관여하였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것으로 조선총독부가 법령을 통해 발굴 유물의 관리를

규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및 유물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였으며, 조선총독의 묵인 하에 발굴업무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한 유출이 빈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는 도굴 혹은 매매 등으로 개인 소장가들의 소장품으로 산일되는 경우도 많았다.

결론적으로 일제의 고적조사사업은 한국의 유적·유물을 조사하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시하였으나, 결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보여주고 싶은 역사, 말하고 싶은 역사를 대변하는 증거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왜곡·재구성되는 극히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근대적 보존’이라는 명분하에 유물이 왜곡 전시되거나 유출되는 이중성을 드러낸 사업이었다.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 회차 | 일자 | 주제 | 강사 | 소속 |
|----|-------|------------------------------|-----|---------------------|
| 1 | 3.23. |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 이순자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 2 | 3.30. |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 권강미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 3 | 4.6.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 김영민 |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
| 4 | 4.20. |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 장은정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
| 5 | 4.27. | 신라 고적조사사업 | 박진일 |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
| 6 | 5.4. | 가야 고적조사사업 | 김수환 |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
| 7 | 5.11. | 낙랑, 고구려 고적조사사업 | 정인성 |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
| 8 | 5.18. | 백제 고적조사사업 | 이병호 |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
| 9 | 5.25. |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 황은순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0 | 6.1. |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 이기성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
| 11 | 6.8. |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 이영식 |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
| 12 | 6.15. | 답사(백제문화권) | 윤용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 13 | 6.22. |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 김현희 |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